

디아 컨템포러리, 신진 작가 연여인 개인전으로 심리적 회화의 새 지평을 열다

“서울시립미술관 개인전 이후 유화로 재료적 실험을 확장해온 연여인은, 내면 회화의 지형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이번 전시를 통해 상업적 협업을 넘어 자율적 서사를 심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Annex 1



연여인, Hang on tight, With all your might!(Leaf), 2025, Oil on canvas, 162.2 X 130.3cm

전시 제목 :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

참여 작가 : 연여인

프레스 프리뷰: 2025년 8월 29일 (금) 오후 2시 - 4시

전시 기간 : 2025년 8월 30일 (토) - 9월 30일 (화)

전시 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길 37

전시 소개

연여인 작가의 개인전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가 2025년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삼청동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유년 시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구조를 중심으로, ‘방’과 ‘집’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회화적으로 탐색한 신작 15점으로 구성된다.

전시 제목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에서 ‘엄마’는 단순한 가족의 호칭이 아니라, 작가 내면의 구조를 형성한 정서적 기반이자 ‘공간의 건축자’로 제시된다. 연여인에게 유년기의 방’과 ‘집’은 감정과 기억, 상상이 축적된 장소이자, 이번 전시의 핵심 상징이다. 성인이 되어 또 하나의 집을 스스로 쌓아가는 지금, 과거의 정서가 스며든 정신적 공간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 남겨진 감정들을 회화로 풀어낸다. ‘버팀’, ‘적응’, ‘극복’, ‘안전기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작업들은 연약한 존재가 삶을 감내하고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이번 전시의 신작은 잉크 드로잉에서 출발하여 유화로 확장되었으며, 반복과 밀도, 그리고 물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시각 언어로 구현해낸다. 작업의 주요 모티프는 작가가 유년 시절, 사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접했던 그림책 이미지, 동물 인형, 반복적 상상 활동과 같은 시각적, 정서적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가 내면의 구조를 형성한 시각적 기호로서 기능하며, 작업 속에서 재조합되고 구조화된 이미지로 발전한다.

연여인 작가는 자신의 회화를 반복적인 노동 행위에 가깝다고 말한다. 감정을 기록하고 다스리기 위해 시작된 그리기는 일기처럼 반복되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고, 회화는 더 이상 창작의 결과물만이 아닌, 감정을 다루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연여인은 스스로를 ‘노동자’라 칭하며, 불안을 해소하고 현실을 감내하는 방법으로서의 회화를 이어나가며 삶을 유지하는 루틴이자 태도다.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는 연여인 작가의 정체성과 회화적 언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자, 현대인의 감정적 피난처와 심리적 회복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내면적 공간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

연여인(b.1995)

연여인은 펜과 잉크, 유화 같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매체부터 영상 미디어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현실적 환상’이라 정의하며, 삶의 주체인 자신이 세상과 마주하며 겪는 사건들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층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기억의 흔적을 매개로 삼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선 인간 존재를 탐구하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모호함과 새로움을 독창적인 서사로 풀어낸다.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난 연여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와 Creative Visual Arts를 복수전공하였다.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에서 첫 개인전 《Engram; 기억흔적》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회화, 조소,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잉크, 유화, 디지털 작업이 결합된 연여인만의 독특한 감성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레드벨벳 ‘Cosmic’ 뮤직비디오의 삽화 및 애니메이션 작업, 젠틀몬스터의 HAUS NOWHERE Shenzhen 미디어 작업 <recess>,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 <동조자> 한국 포스터,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 <나인 퍼즐> 포스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브랜드뿐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아트 디렉팅, 뮤직비디오 제작 등 다채로운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신작 <어쩔수없다>의 포스터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전시 서문

한 사람의 내면은 어떤 구조를 따라 자라나는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연여인 작가의 개인전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는 질문에서 출발해, 응답을 찾아 나가는 회화적 여정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유년 시절을 둘러싼 공간, 감정, 기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생성 배경이자 토대가 되었던 ‘방’과 ‘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단지 물리적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전시의 ‘House’는 한 개인이 구축한 내면의 구조이자, 유년기 정서가 쌓여 이룬 정신적 공간이며, 그 틀을 지탱해온 관계적 기반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사회적 관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방’은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나 오롯이 상상과 감정으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안전기지였다고 회상한다.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진 인형들과의 상상의 티 파티, 그림책 속 캐릭터들과의 내밀한 교감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감정의 언어를 익히고 세상을 번역해나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특히 그림책 속 인물들에 대한 감정 이입과 혼자만의 내면 서사 구축은, 세상과 맞닿지 못한 외로움의 부산물이기 보다는 감각의 확장으로 작용하며, 이후 작가의 표현 세계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부터 생성된 ‘캐릭터’들은 단순히 자아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과장하거나 반전시키는 ‘내적 극장’의 배우들로 기능한다. 나무 위 아이들, 이마에 눈이 있는 소녀, 파란 새, 벽지 뒤에 숨어 있는 아이와 같은 다양한 형상은 모두 작가 자신의 분열된 조각이자, 그녀가 구축한 방 안의 또 다른 ‘나’다. 현실의 자아보다 더 깊이 추락하고, 더 대담하게 회복하며, 더 멀리 나아가는 이 존재들은 감정 구조를 대리 수행하며 작업 전체에 밀도 높은 서사적 힘을 부여한다. 회화는 그 모든 감정과 상상의 파편을 시각 언어로 환원해내는 수행적 행위이자, 작가가 반복적으로 실천해온 치유의 과정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안전 기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이며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연여인에게 ‘방’ 혹은 ‘집’은 단지 물리적 장소가 아닌, 감정과 기억, 정체성이 층층이 축적된 가장 내밀한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방은 외부의 시선과 질서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이자, 내면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심리적 구조물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상상력, 감정, 캐릭터, 침묵의 언어들은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예술적 어휘가 되었다.

이번 개인전은 연여인 작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존재시켜온 그 방을 외부 세계에 처음으로 열어 보이는 시도이다. 이 전시는 단순한 자전적 회고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 자신을 만들어낸 심리적 구조와 정서의 뿌리를 되짚고, 그것을 회화라는 언어로 천천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섬세한 재건 작업에 가깝다.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기억의 방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형성한 ‘집’은 무엇이었는지, 그 집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연여인이 바라는 이 전시의 진짜 출발점이다.

잉크 드로잉에서 출발한 작가의 작업은 유화로 확장되며 색감과 질감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색을 겹겹이 쌓아올려 구현한 화면들이 많으며, 이는 마치 현실의 파편 위에 판타지의 레이어를 덧칠하듯, 작가가 기억의 공간을 재구축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연여인 작가는 그간의 커리어에서 쌓아온 잉크 기반의 작업과 브랜드 협업, 아트디렉팅 및 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구축해온 독창적인 감성 언어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인전에서는 상업적 협업에서 잠시 벗어나, 유화라는 가장 물질적이고 고전적인 매체를 통해 현대 회화의 서사적 맥락 안에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의 첫 장을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5점의 신작 유화를 성실히 준비하였으며, 이는 작가로서의 내밀한 회귀이자 회화에 대한 진지한 응답이다.

이 전시는 한 개인의 회고에서 출발하지만,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모두 어떤 ‘집’에서 자라며, 그 집은 수많은 조건과 관계, 경험으로 이루어진 심리적 건축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길들여지고, 때로는 그 구조에 저항하며 또 다른 집을 짓는다.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는 작가 연여인이 자신을 구성해온 기억과 감정의 구조로 되돌아가, 그 공간을 천천히 응시하는 시도이자, 회화라는 형식을 통해 내면의 지도를 펼쳐보이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단지 자전적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관객에게도 자신의 ‘집’과 ‘어머니’라는 상징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전시 제목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의 ‘어머니’는 단순한 인물을 넘어, 작가의 내면을 구성해온 양육의 환경, 정서의 기후, 그리고 감정이 처음 작동하기 시작한 구조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내가 살던 공간,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본 그림책들,
그리고 내가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모두가 쌓여 나의 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심리적 안전기지과 감정의 권리에 대해, 이 전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언어로 말한다.

“감정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은 누구에게나 정당한 권리다.”

작가의 회화 속 방은 빼돌거나 과장되었으며, 색은 비워지거나 뭉개진 채 남겨진다. 장면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이 머물렀던 공기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의 생태를 직조한다.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는 자신을 만든 잔해들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작업이자, 감정의 피난처를 회복하려는 은밀한 선언이다.

작가는 낮고 뒤틀린 창문을 열고, 무너진 벽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붙잡는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 새롭게 만든 ‘방’이며, 이 전시를 찾는 관객들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을 만든 집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집을 이루는 방은 어떤 감정이 차있는가?”
“이제, 당신은 또 하나의 벽돌을 쌓을 준비가 되었는가?”

작품 이미지

Annex 2



연여인, “Oh, you’ve wandered far, my boy.”, 2025, Oil on canvas, 105 X 105 cm

작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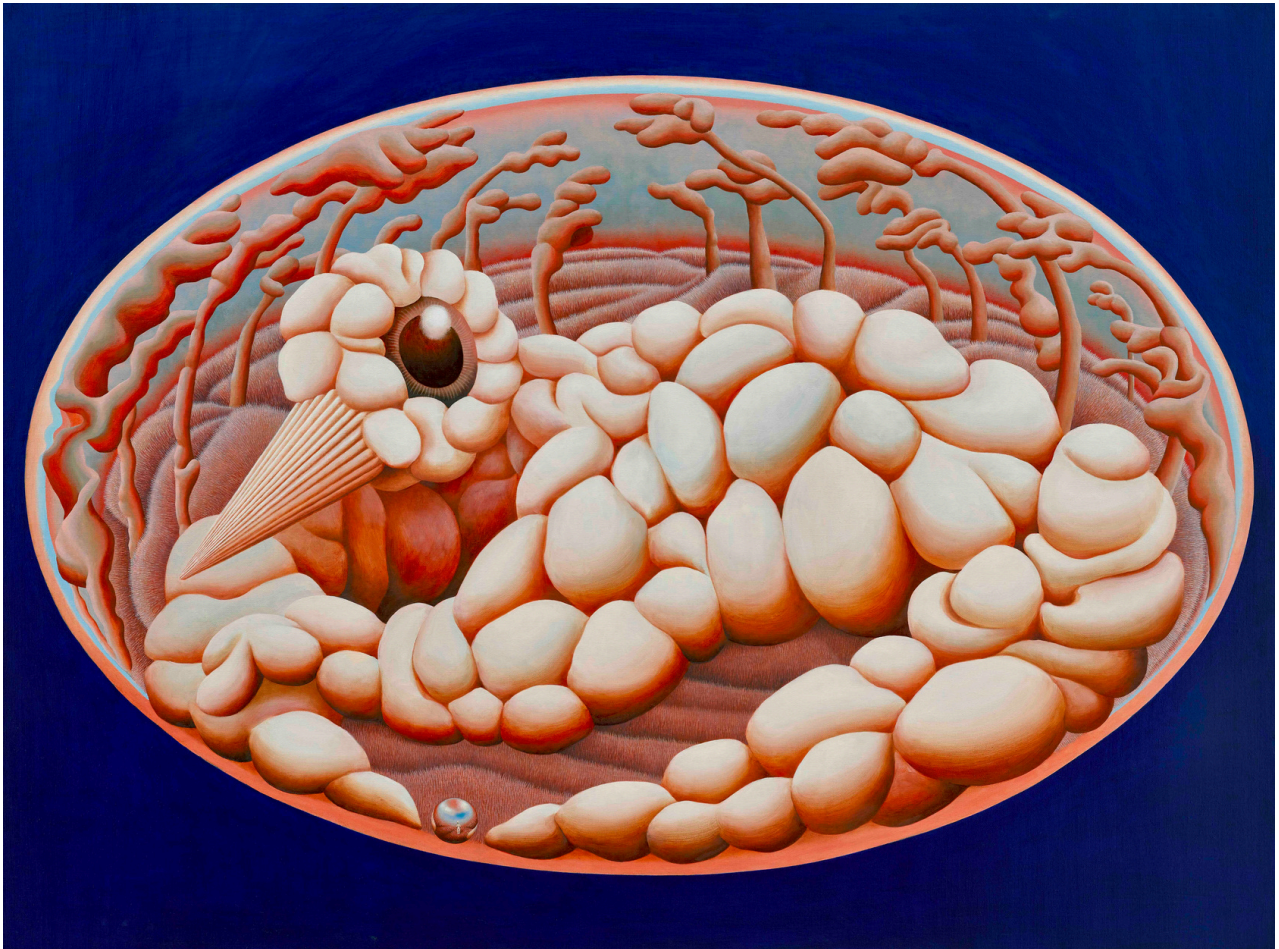
Annex 3



연어인, It wasn't much, but it was his, And that alone was all the bliss, 2025, Oil on canvas, 130.3 X 97 cm

작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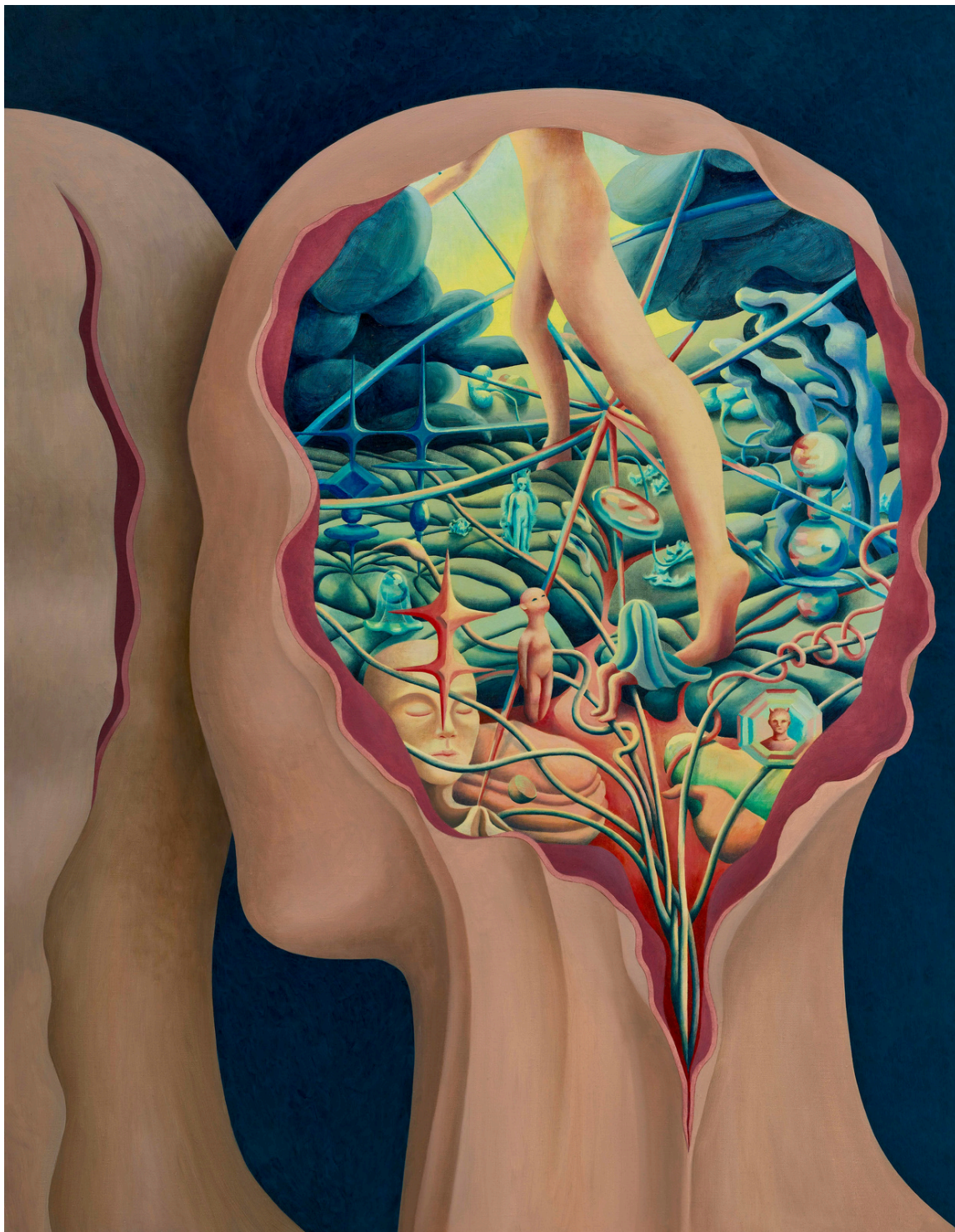
Annex 4



연여인, Deep in the reeds, people say, You can still find The Bird today, 2025, Oil on canvas, 130.3 X 97 cm

작품 이미지

Annex 5



연여인, Perhaps... yes, but it's time to head out, 2025, Oil on canvas, 116.8 X 91 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발굴 |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갤러리 휴(HUUE)는 지난 15년 동안 싱가포르 현대미술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창의적인 예술을 통해 변혁적인 힘을 경험하였다. 지난 십수 년간 섬세하게 기획된 전시를 통해 총 200명에 이르는 한국 작가들을 싱가포르에 소개하며, 한국 현대미술과 공예 작품을 발굴 및 육성하여 동시대 현대미술을 선도해 왔다. 2024년 서울에 DISCOVER INSPIRING ARTISTRY(이하 디아, DIA)를 개관하여, 현대 미술의 탐험과 혁신적인 변화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디아(DIA)는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창의적이며 신중하게 선별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그리고 누구나 디아에서 예상치 못한 예술의 만남과 흥미로운 미적 발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NSPIRING 영감 |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영감의 세계는 감동을 일으키고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 디아는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예술계의 혁신과 영감 그리고 지속적인 진화를 촉진하는 비전 아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 또한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의의미 있는 예술적 대화를 유도하는 활기찬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렌드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포괄성을 제한하는 장벽을 적극적으로 허물고, 다채로운 분야와 관점의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예술적 표현을 풍부하게 육성하고 지원한다.

ARTISTRY 예술성 | 디아에서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지닌 우월함과 창의성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의 비전과 혁신을 담아 각별하게 선정된 작품과 함께 무한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기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각 전시와 작품에 담긴 열정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순한 전시공간 이상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전시 문의

[담당자]

권나영 | sarah.k@diacontemporary.com | 010-9283-4646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Annex 1-5 이미지는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dX1pk0ZScdOHC8wG3D9wfU5QROHL5Fbz>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7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